고흥군 우주산업 중심도시 도약 박차

발사체 앵커기업 유치에 총력
우주산업 클러스터 10월중 지정
2031년까지 8082억원 들여
7개 분야 21개 핵심 과제 추진

고흥군이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 등 우주산업 중심도시로 향한 힘찬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고흥군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오는 2031년까지 8082억원을 들여 7개 분야 21개 핵심 과제를 마련하고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한 우주산업 중심도시로의 힘찬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가가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 가운데 핵심사업으로 분류된다.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 경남은 위성 산업 특화지구, 대전은 연구·인재 개발 특구, 고흥은 발사체 기능 중심의 3각 체제를 구축하는 야심 찬 계획이다. 지난 7월 과기정통부에서 전남과 경남 등 2개소에 대해서는 후보지로 선정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뉴스페이스(New-Space) 시대를 대비해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로, 고흥은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해 민간기업이 정주하면서 기술개발과 시험평가·인증 등 원스톱 발사체 개발이 가능한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고흥군이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오는 2031년까지 8082억원을 들여 7개 분야 21개 핵심 과제를 마련해 우주산업 중심도시로의 힘찬 도약을 추진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주요 사업은 ▲우주발사체 및 전후방 연관기업 집적화를 위한 '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연구개발, 시험평가·인증, 기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기능을 수행할 '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민간 우주개발 핵심 인프라 시설인 '민간발사장' 확충 ▲'민간 연소시험시설 및 발사체 조립 클린룸'을 구축한다.

또 우주과학 체험·교육 시설인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등을 추진하고, 우수 소재·부품기업을 항공우주 분야로 전환·확장하도록 '우주항공부품 사업 다각화 지원 사업'과 우주인 식량을 공급하는 체계 구축을 위한 '우주농업 기초기반기술 연구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중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전남도와 예비타당성 조사에 맞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산업과 함께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엑스포와 드론 라이트 쇼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무인 항공 특화농공단지, 미래 비행체 사업 및 드론 전문학과 신설 등 드론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드론 시장을 확고히 선점한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한 발판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에 희망을 걸었다"면서 "특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핵심 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발사체 앵커기업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기업 및 국회·중앙부처·전남도에 수시로 건의해 사업이 성공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16~18일 세계박람회장서 '여수마린페스티벌'

체험 행사·공연 등 볼거리 풍성

'2022 여수마린페스티벌'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여수시가 후원하고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대회와 풍성한 문화공연으로 진행된다.

첫 날인 16일에는 카약, 드래곤보트 등 해양레저스포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기종목 체험행사가 열린다.

17일에는 7인조 댄스그룹 비스타와 트로트 가수 최호, 나혜진의 화려한 무대가, 18일에는 힙합 댄스그룹 올드·뉴크루의 신나는 문화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부대행사로는 해양레저체험, 해양안전교실, 크루즈 요트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이벤트가 준비돼 있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제10회 해양수산부장관배 전국 카약대회'와 '제2회 여수 전국 해양레저스포츠대회'도 이 기간 중 함께 개최돼 선수들의 흥미진진한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다.

대회 참가 신청은 한국해양소년단 해양레저스포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으로 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담양군에 루지·짚라인 시설 들어선다

창평면 죽향CC 휴양단지 탈바꿈

담양군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취미·여가(액티비티) 시설인 루지와 짚라인이 들어선다.

담양군에 따르면 죽향산업은 창평면 광덕리 일대 39만5000㎡ 부지에 총 9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복합 관광휴양 단지(담빛 팜월드)를 조성한다.

이 부지에는 현재 18홀 규모의 죽향CC(18홀)가 들어서 있다.

골프장은 2023년 8월까지만 운영되고 복합 관광휴양단지로 대체된다.

2023년 말께 착공해 2025년 완공 계획이다.

휴양단지에는 루지와 짚라인이 설치된다.

동계 스포츠 종목 중 하나인 '루지'는 얼음 썰매에 누워 일정한 트랙을 달리는 경기다.

휴양단지에 설치되는 루지는 남부지방 기후 등을 고려해 얼음 썰매와 트랙을 변형한 놀이시설이다.

짚라인은 높은 곳에서 와이어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형태의 시설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7월 취임한 이병노 군수는 2026년 개장 목표로 무정면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에 이어 액티비티 시설도 유치하게 됐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목포 수산업 북항시대 개막…서남권수산지원단지 조성

목포수협 일부 업무시설 이전
2년 연속 전국 위판고 1위 역할

목포 수산업의 북항 시대가 열렸다.

목포시는 해양수산부와 전남도로부터 지원받아 생산·유통·물류·지원 기능을 집적해 종합적인 어업활동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남권수산종합지원단지'를 북항 배후부지에 조성했다.

379억원이 투입된 지원단지는 위판장, 가공시설, 냉동·냉장시설, 제빙·저빙시설, 판매장, 보급창고, 유류공급시설 등을 갖췄다.

현재 가공시설, 냉장·냉동시설, 보급창고, 고속급유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목포수협이 2020년 2062억원, 2021년 1984억원 등 2년 연속 전국 위판고 1위를 차지하는 데 지원시설이 결정적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사업비 36억6000만원을 투입해 저온위판 시스템과 자동선별기 도입을 올해 하반기에 마칠 계획이다.

또 유통기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제빙실, 저빙실, 쇄빙탑 등을 구축하는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을 한다.

북항 서남권수산종합지원단지.

이와 별도로 목포수협이 중도매인·상인 등을 위한 판매시설을 건립한다.

목포수협은 지난 5월 북항 서남권수산종합지원단지로 일부 업무시설(4개실, 3개과, 1팀)을 이전하면서 지난 80여년 간의 선창 시대를 마감하고 북항시대의 새로운 개막을 알렸다.

목포시 관계자는 "서남권수산종합지원단지가 새로운 관광명소, 수산물 가공·유통의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매김해 목포 수산업의 도약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함평군, 민간 행정기록물 모아 유산 보존

사진·책·앨범 등 수집 캠페인

함평군이 민간에 흩어져 있는 행정기록물 찾기에 나서 주목된다.

함평군은 가정집 또는 창고 등에 방치돼 있는 행정기록을 수집해 기록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한 수집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수집대상은 사진, 책, 월급명세표, 임용장, 앨범, 훈장 등 함평과 관련된 행정기록이라면 무엇이든 해당한다.

캠페인은 오는 10월31일까지 실시하며, 함평군 총무과로 전화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집된 행정기록물은 자체 심의를 거쳐 행정기록물로 보존하며, 추후 전시를 통해 군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기록물 수집 캠페인이 함평군 행정 역사를 기억·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해남군,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 공모' 선정

월송 유해시설 정비 50억 확보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 농촌공간정비사업 2차 공모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농식품부 농촌협약 시군을 대상으로 축사·공장·빈집·장기방치건물 등 농촌의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농촌공간조성을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협약 생활권내인 현산면 월송(시등)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국비 25억원 등 총 50억원을 투자해 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지구인 현산면 월송지역은 장기간 방치, 폐공장과 창고, 빈집 등 유해시설들이 마을내에 밀집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지역 경관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해시설을 제거하고 귀농귀촌 및 고령자를 위한 공동임대주택을 조성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시설 확보와 주민 쉼터, 주차장, 산책로를 마련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산면 월송은 포레스트 수목원과 땅끝관광지, 달마산 미황사로 연결되는 교통요충지로, 관광 해남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